

## 조선시대 궁궐건축의 우물천장 구조 종이반자 연구

Research on Paper Board Banja With Woomul(井) Structure  
of Royal Palaces in the Joseon Dynasty

이 종 서\*

Lee, Jong-Seo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 Abstract

Korean architecture classifies Banja (the decorated flat of the ceiling visible from the inside) of Royal Palaces into two types: Woomul(water-well, 井) banja, which inserts rectangular wooden board into lattice frame, and paper banja, which applies paper to the flat ceiling. Such classification was established in the 19th century. Before that, Banja was classified according to what was inserted into the lattice frame, either wooden or paper board. At first, the banja that used paper board was widely installed regardless of the purpose or nobility of the building. However, since the 17th century, the use of paper board banja became mostly restricted to Ondol (Korean floor heating system) rooms which are characterized by private usage and the importance of heating, and it was considered inferior to wooden board banja in terms of rank or grace. The contemporary paper banja was mainly installed in low-rank ondol rooms until the late 19th century to early 20th century, when roll-type wallpaper was introduced from the West and the paper banja came to decorate the King's and Queen's bedrooms. The traditional paper board banja benefits heat reservation, reduces the weight of the ceiling, and allows the adjustment of the lattice frame size. Furthermore, it can feature unique artistry if covered with blue, white, or red Neung-hwa-ji (traditional flower patterned paper).

주제어 : 우물천장, 종이반자, 우물목반자(우물천장 구조의 목판 반자), 우물지반자(우물천장 구조의 종이판 반자), 궁궐, 종묘(宗廟)

Keywords : Woomul ceiling(ceiling with lattice frame), Paper banja (flat underside of the ceiling covered with paper), Woomulmok-banja (lattice frame structured ceiling with wooden board), Woomulji-banja(attice frame structured ceiling with paper board), Palace, Jongmyo(the King's and Queen's shrine)

## 1. 서론

한국의 궁궐건축에서 반자 구조에 대한 이해는 크게 반자 전체 면적에 평평하게 종이를 바르는 ‘종이반자’와 격자[井] 형태의 반자틀에 목판을 끼우는 ‘우물반자’로 대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종이반자는 온돌방에 주로 설치하고, 우물반자는 정전이나 대청에 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종이반자는 난방 기능에 유의한 시설로 여기고, 우물반자는 권위 있는 공간의 고급스러운 시설로 여긴다. 이렇듯 종이반자와 우물반자는 한국의 전통 건축요소로서 해당 반자가 설치된 공간의 성격과 위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1)</sup>

그러나 현존 궁궐건축이나 조선후기 기록에서 반자의 종류와 구조를 살펴보면, 현재의 종이반자와 우물반자의 구분과 성격 규정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반자 구조에 대한 현재의 보편적인 구분과 이해는 19세기 후반 이후에 성립하였음이 확인된다.

본고에서는 우물천장 구조의 종이반자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19세기 이전 궁궐건축에서 ‘반자’는 으레 격

\* Corresponding Author : ljs6102@naver.com

1) 반자를 전문적으로 다룬 연구는 확인하기 어렵다. 여러 건축사전의 해설은 현존 반자의 종류와 구조, 제작 기법에 집중하고 반자의 유래나 변천에 대한 소개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이는 반자를 현존 실물과 유지되고 있는 기법에 기준하여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자형 반자들을 갖춘 우물반자를 뜻했음을 확인할 것이다. 격자에 끼우는 반자판은 살창 구조의 판에 종이를 바른 것과, 목판으로 나뉘었음을 확인할 것이다. 필자는 전자를 ‘우물지반자’로, 후자를 ‘우물목반자’로 구분하여 표현하겠다.<sup>2)</sup> 현재 통용되는 개념대로의 종이반자가 설치되어 있거나, 그렇게 설치해야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공간에 우물지반자를 설치하였음을 확인할 것이다. 우물지반자를 방과 청을 구분하지 않고 설치하다가 점차 방반자로 굳어진 경향과 마침내 건축 요소에서 소멸한 과정을 확인할 것이다.

우선, 우물지반자가 남아 있는 현존 궁궐 건물들을 살펴 우물지반자의 반자판 구조와 도배 상태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우물지반자를 조선전기 건물에도 설치했으며, 19세기 중반까지 궁궐건축에 광범하게 적용했음을 다양한 기록에서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묘와 영녕전의 우물지반자를 분석하여 이른 시기일수록 우물지반자와 우물목반자의 구분을 공간의 성격이나 권위의 차이와 관련짓지 않았음을 확인할 것이다.

## 2. 우물지반자의 현존 사례와 기록

### 2-1. 우물지반자의 현존 사례

현재 궁궐 건축에서 우물지반자는 창덕궁의 성정각·관물헌·서향각·취운정, 창경궁의 승문당에 남아 있다. 창덕궁 성정각은 임진왜란 이후 1665년(현종 6) 이전에 지었고 1777년(정조 1)에 대규모로 수리하였으므로<sup>3)</sup> 현재의 우물지반자는 1777년 이전의 구조로 볼 수 있다. 성정각 단층부는 총 4칸으로 동쪽 두 칸이 방이고, 서쪽 두 칸이 마루이다. 우물지반자는 방으로 구획한 동쪽 두 칸에 설치되어 있고, 서쪽 두 칸은 서까래가 드러나는 연등천장이다.

성정각은 정조 이후 편전으로 사용할 때에 방 부분은 권위가 높은 ‘영내(楹內)’로 마루 부분은 권위가 낮은 ‘영외(楹外)’로 규정되었다.<sup>4)</sup> 현재 성정각의 우물지

2) 본고에서 우물지반자/우물목반자로 구분한 반자구조는 17세기 기록에서 확인되는 ‘지천반자/순각반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본고 2장 2절 참조). 그러나 현재 순각반자는 포반자를 한정하는 용어로 굳어졌기에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현재 ‘우물반자’가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므로 필자는 우물반자 표현을 유지하면서, 반자판의 재질에 따라 ‘지(紙)’와 ‘목(木)’을 추가하여 우물지반자와 우물목반자로 대별하였다. 이러한 표기는 본고에 국한하여 사용하는 잠정적인 것임을 밝혀둔다.

3) 이종서, 「창덕궁 성정각의 건축 시기와 건축 구조」 『건축역사연구』 28-2, 2019

4) 이종서, 「1777년(정조 1) 이후 창덕궁 성정각의 편전(便殿) 구조」 『건축역사연구』 29-6, 2020

반자는 소란을 갖춘 ‘井(정)’자 형 반자틀과 창틀 구조의 ‘田(진)’자 형 반자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자들은 청지(靑紙)로 도배하고, 반자판은 맹장지[盲障子]처럼 사면에 백지를 발랐다. 그런데 1997년 수리 과정에서 찍은 사진에서는 반자들이 처음 노출되었을 때의 모습이 확인된다.<sup>5)</sup>



그림 2. 성정각 반자 현황(좌)과 1997년 수리 때의 모습(우)

사진에서는 반자들[대란] 하부에 청능화지를 바르고, 반자들 수직면과 소란에 무늬가 없는 청색 종이를 발랐다. 반자판에는 청색 등근 문양이 있는 흰 종이를 발랐다. 문양의 형태로 미루어 일본 제품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후 반자틀과 반자판이 노출되지 않게 반자들[대란] 하부 전체에 평평하게 종이를 발랐음이 확인된다. 초배지로는 신문지를, 정배지로는 두루마리 형태의 서양식 벽지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성정각의 방 부분 반자는 현존 건물을 지을 때에 우물지반자였으나, 이후 현재 통용되는 개념의 ‘종이반자’로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07년에 순종이 즉위하여 창덕궁으로 옮겨 거주했다는 점에서 변형은 1907년 이후 일제강점기에 발생했다고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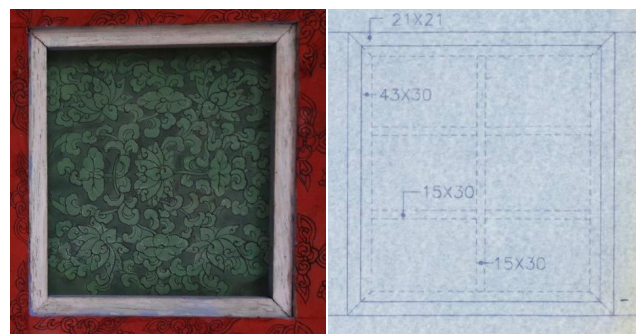


그림 3. 서향각 반자 현황(좌)과 1995년 보수설계 도면(우)

창덕궁 서향각은 1776년(정조 즉위년)에 지었다. 현재 서향각 대청과 방 상부의 우물반자는 청색 바탕의 천판에 정교하게 무늬를 그려 넣어 육안으로는 지반자판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995년에 작성한 도면에

5)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 『창덕궁 성정각 권역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20, 39쪽 참조.

서는 방과 마루 천장의 반자가 모두 우물지반자로 확인된다.<sup>6)</sup>

창덕궁 관물헌은 『승정원일기』에서 1781년(정조 5) 8월 26일에 이름이 처음 나타난다. 관물헌 온돌방에도 성정각과 동일한 구조의 우물지반자가 설치되어 있다. 창덕궁 취운정은 1686년(숙종 12)에 건축하였다.<sup>7)</sup> 취운정의 우물지반자는 한변이 45cm 정도인 성정각 반자판과 한변이 35cm(마루), 50cm(방) 정도인 서향각 반자판에 비해 격자[井] 규모가 커 방형 반자판의 한 변이 70cm에 가깝다.<sup>8)</sup> 우물목반자 구조에서는 판자의 하중과 재료의 한계로 인해 이처럼 큰 격자를 구성하기 어렵다. 창덕궁 인정전의 정방형 목반자판이 사방 '1척 8촌', 약 55cm로 설계된 것으로 미루어,<sup>9)</sup> 취운정 천장에는 1686년 초창 때부터 우물지반자를 설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취운정 우물지반자의 도배도 성정각의 현 상태처럼 반자틀[대란]과 소란에 청지를 바르고 지반자판에 백지를 발랐다. 그러나 성정각 반자의 1997년 수리 전 도배 상태를 고려하면 현재의 모습은 취운정을 보수하면서 정돈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그림 4. 관물헌(좌)과 취운정(우)의 우물지반자 현황

마지막으로 창경궁 승문당은 1616년(광해군 8) 창덕궁을 중건하면서 지었으며, 영조는 창경궁에 거주할 때 대부분의 정무를 이곳에서 보았다.<sup>10)</sup> 이후 1830년(순조 30) 8월 1일에 환경전에서 시작된 화재로 불타 그해 9월 2일에 '개건(改建)'을 시작하였다.<sup>11)</sup> 승문당이 완전

6) 문화재청, 「도면·사적 \_창덕궁·서향각 실측설계 및 보수설계(2-2) 현판, 주련, 반자 상세도」, 1995

7) 창덕궁과 창경궁 건물의 건축 이력에 대해서는 『우리 궁궐을 아는 사진』(역사건축기술연구소, 2015, 돌베개)을 참조하였다. 이하 개별 건축의 이력이 이 책에서 확인되면 개별 각주를 달지 않는다.

8) 문화재청 창덕궁 관리소, 『창덕궁 취운정 해체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14, 68·104쪽 참조.

9) 『인정전영건도감의궤』 도설(圖說) 전우척량(殿宇尺量), “斑子正中唐家外前後各三十六井(중략)合三百七十二井 大欄高七寸廣四寸(중략)廳板各方一尺八寸”

10) 『승정원일기』에서 ‘임금이 창경궁에 계셨다[上在昌慶宮]’와 ‘승문당에 남시었다[御崇文堂]’로 검색하였다.

히 소실되었다면 현재의 구조와 설비는 1830년 개건 때의 건축계획을 따른 것이 된다. 그러나 다른 건물들을 1834년에 재건한 것과 달리,<sup>12)</sup> 승문당만 화재 직후 개건한 것을 보면 승문당은 전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손상된 부분만 수리했다면 화재 이전의 수장을 유지하거나 복구했을 것이다.

승문당 지반자판의 규모는 우물지반자가 설치된 창덕궁과 창경궁 건물 중 가장 크다. 단변이 72cm이고 장변이 80cm에 이른다. 이로부터 1616년(광해군 8) 건축 때에 이러한 구조와 규모의 반자를 설치했으며, 이 반자가 1830년(순조 30) 화재 후에도 유지되거나 복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 승문당 지반자 구조 노출 상태(상), 반자틀 대란과 소란의 청능화지 도배 상태(중), 지반자판 울거미의 초배지와 정배지 잔존 상태(하)

승문당 천장은 최근까지 반자판 구조와 도배지 종류, 도배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 반자틀의 대란과 소란에는 청능화지가 붙어 있고, 2016년 수리 전에는 반자판에 발랐던 초배지와 정배지

11) 『승정원일기』 2257책 순조 30년(1830) 8월 22일(정미)

12) 『창덕궁영건도감의궤(1834)』, 『창경궁영건도감의궤(1834)』

도 일부 남아 있었다. 초배지는 글씨를 쓴 종이를 재활용하여 여러 겹 발랐다. 정배지의 문양은 사진에서 확인되는 잔존 상태로 미루어 청능화문과 홍능화문이 교차했다고 보인다.<sup>13)</sup>

또한 승문당에서도 19세기 말 이후 반자틀 하부에 두루마리로 된 서양식 벽지를 도배하여 천장 전체를 가렸음이 확인된다. 처음 변형되었을 때의 초배지로는 일제강점기의 신문지가 확인되고, 정배지로는 서양식 벽지가 확인된다. 그 위에 한글 신문지와 서양식 벽지가 덧발라져 해방 후에도 이러한 방식의 도배가 수차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 2-2. 기록에서 확인되는 우물지반자

### (1) 우물지반자의 광범한 설치

앞 절에서는 궁궐건축에서 우물지반자가 현존하는 창덕궁의 성정각·관물헌·취운정, 창경궁의 승문당 반자의 구조와 도배지, 도배방식을 분석하였다. 현존 궁궐 건물에서 우물지반자는 일부 건물에만 남아 있지만 기록에서는 우물지반자의 유래가 매우 오래고, 다양한 건물에 광범하게 설치했음이 확인된다.<sup>14)</sup>

가장 이른 기록은 1608년의 『영접도감군색등록』이다. 여기에서는 명의 정사·부사가 머문 남별궁의 온돌방과 외대청(外大廳) 반자에 백능화지를 바른 것이 확인된다.<sup>15)</sup> 능화지로 대청 반자를 도배한 것으로 미루어 이 반자는 격자형 반자들을 갖춘 우물지반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남별궁 우물지반자의 의장(意匠)은 1819년(순조 19)에 작성한 『빈례총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정사가 머무는 2칸 규모의 온돌방 반자[板子]는 남능화지(藍菱花紙)로 도배하고 소란에는 무늬를 그렸다[起花]. 4칸 규모의 대청 반자는 백능화지로 도배하고 소란에는 단색으로 칠하였다[丹青].<sup>16)</sup> 모두 우물지반자 구조로서 온돌방 반자를 대청보다 화려하게 꾸몄음을 알 수 있다. 남별궁 건물은 임진왜란 이전 궁

방 건물이 유지된 것이고, 『빈례총람』은 청 사신을 접대하는 제반 절차와 시설을 규범화한 것이다.<sup>17)</sup> 따라서 『빈례총람』에서 확인되는 남별궁 온돌방과 대청의 우물지반자는 남별궁을 처음 지을 때에 설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1633년(인조 11) 『창경궁수리소의궤』와 1647년(인조 25) 『창덕궁수리도감의궤』, 1652년(효종 3)의 『창덕궁창경궁수리도감의궤』에서 우물지반자가 확인된다. 17세기 전·중반은 조선 전기 궁궐건축을 기억할 수 있었던 시기라는 점에서 이들 기록에서 확인되는 우물지반자는 조선 전기 궁궐의 반자 구조를 재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1633년 『창경궁수리소의궤』에서 우물지반자는 ‘지반자 56개(介)’로 나타난다. 이 ‘지반자 56개’는 창호(窓戶)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는 부분에 들어 있어 종이를 바를 수 있게 울거미와 살대로 조립한 반자판틀임을 알 수 있다.<sup>18)</sup> 1647년의 『창덕궁수리도감의궤』에는 ‘지천반자(紙天班子) 40척(隻)’으로 나타난다. 전통건축 기록에서 ‘척(隻)’은 창호를 세는 단위이다. 이어 “대란·소란 및 동대란을 갖추었다[大欄小欄及童大欄具]”고 하여 이 지천반자를 고정하는 반자들이 격자 구조였음이 확인된다.

현재 우물목반자의 반자판을 ‘천판’으로도 칭하는 것을 고려하면, 지천반자는 ‘지천판자’와 같은 뜻이라고 생각된다. ‘지천반자’는 1659년(현종 즉위) 『효종영릉산릉도감의궤』, 1667년(현종 8) 『영녕전개수도감의궤』, 1683년(숙종 9) 『(명성왕후승릉)산릉도감의궤』에서도 확인된다. 17세기에 우물지반자를 ‘지천반자’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1652년의 『창덕궁창경궁수리도감의궤』에는 ‘옥화당(玉華堂) 지반자 40척(尺)’으로 나타난다. ‘척(尺)’은 ‘척(隻)’의 뜻으로 썼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1659년 『효종영릉산릉도감의궤』에서는 ‘지천반자(紙天盤子)·순각반자(巡角盤子) 수장(修粧)’이라고 표기하여 반자의 구조에 따라 지천반자와 순각반자로 구분했음을 알 있다. 18세기 중반 이후의 기록에서 ‘순각반자(巡角盤子)’는 우물목반자를 칭하는 용어로 자주 확인되나, ‘지천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시기에 지천반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게 되었다고 짐작된다.<sup>19)</sup>

13)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 『창경궁 승문당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16 참조.

14) 이 논문에서 의궤 자료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s://kyu.snu.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www.aks.ac.kr](http://www.aks.ac.kr)),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https://www.museum.go.kr/uigwe>) 사이트에서 검색하였다. 이외에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과 승정원일기 ([sjw.history.go.kr](http://sjw.history.go.kr))를 검색하였다.

15) 『영접도감군색등록』, “명 정사가 머무는 상방의 온돌...반자는 백능화지를(바른 것을) 그대로 쓴다...외대청의 반자는 백능화지를 그대로 쓴다[天使上房溫堦(중략)班子白綾花仍用(중략) 外大廳班子白綾花仍用]”

16) 『빈례총람 권』 “正使房 [明雪樓下東邊○房二間(중략) 板子塗藍菱花 小欄起花 大廳四間(중략) 板子塗白菱花 小欄丹青]”

17) 이종서, 「조선시대 남별궁(南別宮)의 평면 구조와 변화」, 『건축역사연구』 29-1, 2020 참조.

18) 『창경궁수리소의궤』 이소(二所) “雙窓三十五隻 獨窓十隻 之介十六隻 障子七部戶具 烟窓五隻 紙班子五十六介 壁莊門十四隻 板門十三隻”

19) ‘순각반자’의 한자 표기는 ‘筓角盤子(『산릉도감궤(1674)』), ‘楯閣

(2) 우물지반자의 설치 공간과 성격 고정

우물지반자는 조선전기 이래 유지되어 온 기법과 시설로서 17세기에 도 궁궐 건물에 광범하게 설치하였다. 그런데 이미 17세기 전반부터 우물지반자가 온돌방에 특화된 반자구조로 되어감과 더불어 우물목반자에 비해 위상이 낮아져 간 경향이 확인된다.

1648년(인조 26) 창경궁에 세자의 거처인 저승전을 짓고 건축 내역을 『저승전의궤』에 정리하였다. 저승전에는 대청 좌·우로 동온돌 6칸과 서온돌 6칸을 두었다. 동·서 온돌방 천장은 이중 구조로 상층의 ‘판반자’와 하층의 ‘지천반자’로 이루어졌다. 대청에는 모란을 그린 판반자를 설치하였다.<sup>20)</sup> ‘지천반자’는 우물지반자이고, ‘판반자’는 우물목반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청 반자의 위치가 온돌방의 지반자보다 높았음도 짐작할 수 있다. 대청 천장과 동·서 온돌방에 같은 높이로 우물목반자를 설치한 뒤, 온돌방에는 우물목반자 아래에 다시 우물지반자를 설치한 것이다.

이렇듯 저승전 온돌방에 반자를 이중으로 설치한 것은 우물지반자를 온돌방에 적합한 시설로 여기고, 대청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하는 경향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조선전기 궁궐 건축에 온돌이 시설되지 않았고,<sup>21)</sup> 저승전의 대청과 방에 우물목반자를 설치한 뒤 다시 방에만 우물지반자를 설치한 것을 고려하면, 조선전기

궁궐에서 본래는 방과 대청 모두 같은 높이에 반자를 설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방에 온돌시설이 보편화되어 구들에서 발산하는 열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반자의 높이를 낮춤과 더불어 보온 기능이 뛰어난 지반자를 방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725년의 사례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다.

1725년 종묘를 고쳐 지을 때에 경덕궁(경희궁) 위선당은 신주 이안처가 되어 봉안에 적합하게 수리하였다. 수리 기록에서 위선당의 대청[正堂]에는 모란을 채색한 우물목반자인 ‘채반자(彩斑子)’가 설치되어 있었고, 동·서 방에는 능화지를 바른 지반자가 채반자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반자의 ‘2.5척’ 위에 대청과 같은 높이로 채반자를 설치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신주를 이안하려면 방 반자를 올려 설치해야 했으므로 채반자 흔적이 있는 높이에 채반자를 설치할지, 기존 지반자를 채반자 흔적만큼 올려 설치할지 논의하여 지반자를 올려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sup>22)</sup> 논의 과정에서 ‘지반자얼굴[紙斑子於乙骨]’ 즉, 지반자판의 지름이 어칸 목반자판보다 컸으며, 지반자얼굴에는 청능화지로 도배하고, 지반자들[대란]에는 백능화지로 도배했음이 확인된다.<sup>23)</sup>

이와 같은 사례는 조선전기 궁궐 건축에서 방과 대청을 구분하지 않고 광범하게 설치했던 우물지반자가 조선후기에 온돌방에 특화되어 간 경향을 알려준다. 저승전의 반자 구조는 조선전기 방식대로 반자를 설치한 뒤, 온돌 난방으로 인한 필요에 따라 낮은 위치에 지반자를 덧 설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위선당의 반자 구조는 기존에 설치했던 판반자를 철거하고 이보다 낮은 위치에 우물지반자를 설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우물지반자의 제한적 설치와 위상 저하

앞에서 17세기 이후 대청에 우물목반자를 설치하고, 방에는 우물지반자를 설치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반자 구조를 그것이 설치되는 공간의 성

斑子(『종묘개수도감의궤(1726)』), ‘巡廊班子(『정성왕후』산릉도감의궤(1757)』·『영조』원릉산릉도감의궤(1776)』), ‘純角班子(『창덕궁영건도감의궤(1834)』·『종묘영녕전중수도감의궤(1836)』) 등으로 나타난다. 이 중 대부분은 기재 내용으로부터 현재의 우물반자(우물목반자)에 해당함이 확인된다. 다만, 『종묘개수도감의궤』에서는 ‘전내·전퇴·후퇴’ 반자의 격자수와 소란 고정용 못의 수량을 기재한 뒤, ‘楯閣班子’를 기입하여, 지금처럼 포 사이에 배치하는 반자를 가리켰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순각반자’의 동일한 표기로 여겨지는 ‘송각반자(崇閣班子)’의 용례를 보면, ‘순각반자·송각반자’는 방형 틀 사이에 목관을 끼워 넣는 모든 반자 구조를 포괄했을 가능성이 확인된다. 1904년에 완성된 『중화전영건도감의궤』에서는 ‘송각반자’의 장대란(장대란), 동대란(동대란)과 더불어 각 변이 1척 2촌인 정방형의 ‘송각청판’을 소란과 더불어 기입한 뒤 ‘포송각(包崇閣)’을 기입하였다. 이 포송각은 길이 4척, 너비 7촌의 장방형이고, 소란의 길이도 절반은 4척이고, 절반은 7촌이다(“崇閣班子 長多欄(중략)同多欄(중략)崇閣廳板六立 四方一尺二寸 小欄五十六箇 包崇閣一百六十立 各長四尺廣七寸 小欄六百四十箇內 三百二十箇各長四尺 三百二十箇各長七寸”). 그러므로 지천반자(우물지반자)를 광범하게 설치한 시기에 반자는 천관이 지반자판이면 ‘지천반자’로, 목반자판이면 ‘순각반자’로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격자형 반자들에 목반자판만 설치하게 되면서 정방형 목관을 설치하는 반자는 ‘우물반자’로, 포 사이에 장방형 목관을 설치하는 반자는 ‘순각반자’로 구별하는 방식이 굳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20) 『저승전의궤』“儲承殿二十八間內[東溫堦六間 上層板班子 下層紙天班子 西溫堦六間 上層板班子 下層紙天班子]大廳扶樓十六間內[北退三間欄干內六間牧丹班子]”

21) 이종서, 「고려~조선전기 상류 주택의 방한 설비와 취사 도구」 『역사민속학』 24, 2007 참조.

22) 『종묘개수도감의궤 상』 품목질, “지금 지반자얼굴을 당초의 채반자가 있던 곳으로 올려서 배치함이 마땅한데...어떻겠습니까?”라고 당상관에게 아뢰니 ‘그렇게 하라.’고 승인하였다[今紙斑子於乙骨差上 移排當初彩斑子處宜當(중략)何如 稟堂上[手決內 依]”

23) 『종묘개수도감의궤 상』 품목질, “지금 배치되어 있는 지반자얼굴은 지름이 넓고 커서 어칸의 제도와 모양과 많이 다르니 반자얼굴도 어칸에 따라 마련하오며...[即今所排紙斑子於乙骨則 間貼闊大與御間制樣殊異 斑子於乙骨設置 依御間磨鍊爲乎於(하략)]위선당 좌우방은 지반자로 할 일을 이미 결정했는데 앞서 배치한 지반자얼굴은 그대로 청능화로 도배하고 대란은 백능화로 도배하여...[爲善堂左右房 以紙斑子爲之事 既已定奪爲如乎 前排紙斑子於乙骨 仍以青菱花塗楯 大欄以白菱花塗楯(하략)]”

격 및 위상과 관련된 것으로 여기게 되었을 가능성을 알려준다. 우물지반자는 폐쇄적이고 사적 성격이 강한 온돌방에 특화되고, 우물목반자는 정전이나 대청처럼 개방성과 의례성이 높은 공간에 특화된 시설로 여기게 되었으며, 그 결과 반자 구조를 위상과 결부하여 이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물지반자가 공간적으로 특화되고 위상 면에서 구별되어 간 경향은 18세기 후반 이후의 기록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표 1. 1794년 화성행궁 증축 건물의 반자 기록

건물명	소란 (개)	살반자 [箭盤子](隻)	반자판 (立)	비고
장락당	288	72		
복내당	72	18		복은돌 등 신건(新建) 부분
낙남헌	864	48	168	노래당 포함

위 <표 1>은 『화성성역의궤(1796)』에서 화성행궁 건물 중 1794년(정조 18)에 증축한 장락당, 복내당, 낙남헌(노래당 포함)의 반자판 수와 종류를 정리한 것이다. 장락당은 총 13칸 중 온돌이 8칸으로 온돌방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였다. 복내당은 1789년에 지은 건물에 ‘복은돌’을 증축하였다. 낙남헌은 14칸 반으로 건물 전체가 마루였으며 노래당 7칸과 연결되어 있었다. 노래당은 7칸 중 온돌이 3칸이었다.<sup>24)</sup>

행궁 건물의 반자는 건물에 대한 개설인 ‘행궁’ 편과 투입된 자재의 종류와 수량 기록인 ‘재용’ 편에서 확인된다. ‘행궁’ 편에서는 낙남헌 영내(楹內) 부분 천장에 ‘조정(藻井)’을 설치한 것만 확인된다.

『화성성역의궤』에서 ‘조정’은 동북각루(방화수류정)의 정간(正間) 반자와 2층 구조인 서장대의 1층 반자로도 기재되어 있다. ‘도설(圖說)’에서는 ‘현란(懸欄)’을 ‘조정이라고도 부르며 동북각루에서 보인다’고 설명하고(懸欄[一曰藻井以上見東北角樓]) 우물반자 모양으로 그려 놓았다.<sup>25)</sup> ‘실입(實入)’에서는 ‘소란 200개’와 ‘반자판 50립(立盤)’을 기재해 놓았다. 따라서 『화성성역의궤』에서 ‘조정(藻井)’으로 기록한 반자 구조는 현재 개념의 우물반자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화성과 화성행궁 건물 중 ‘조정(우물목반자)’을 설치한 경우만 기록한 것으로부터 우물목반자를 권위와 위상이 높은 건물이나 공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여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행궁 건물에 대한 개설에서 반자는 ‘조정’으로 표기

24) 『화성성역의궤(제8책)』 권6 재용 하 부분1 행궁(行宮), 부편2 재용 참조.

25) 『화성성역의궤(제1책)』 권1 도설(圖說) 명물각도(名物各圖) 조정(藻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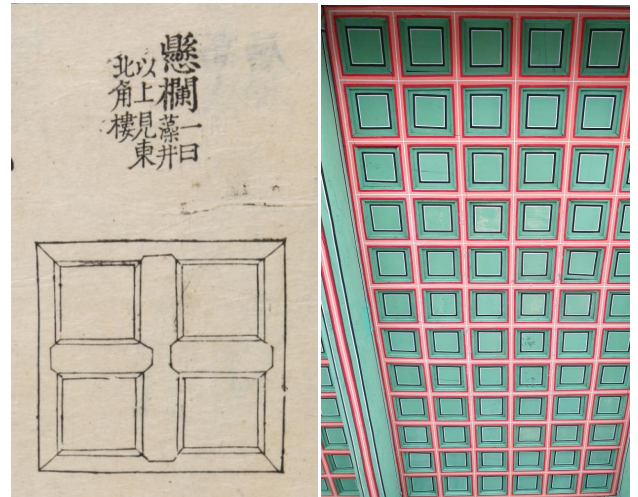


그림 7. 『화성성역의궤』의 조정(우물목반자) 도설과 현 낙남헌 영내(楹內)의 우물목반자

한 우물목반자만 확인되지만, ‘재용’ 편에서는 ‘살반자 [箭盤子]’를 온돌방에 광범하게 설치된 것이 확인된다. 장락당에는 소란 288개를 써서 ‘살반자[箭斑子] 72척’을 설치하였다. 단위가 ‘척(隻)’인 것은 살반자가 울거미와 살대로 구성된 창호 구조임을 알려주고, 소란의 수가 살반자 수의 4배수라는 점은 장락당 반자가 우물지반자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살반자 72척은 온돌방 8칸의 9배수라는 점에서 칸 당 9개의 격자로 구성된 지반자틀에 끼워 넣었음을 알 수 있다. 복내당은 온돌방만 증축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복내당의 살반자 18척은 모두 온돌방에 설치한 것이다.

장락당과 복내당에 살반자만 설치한 것과 달리 노래당을 포함한 낙남헌에는 두 종류의 반자를 설치하였다. 소란 864개를 써서 ‘반자판’ 168립과 ‘살반자’ 48척을 설치하였다. 낙남헌 반자는 우물지반자와 우물목반자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자판’은 개설에서 ‘조정’으로 표기한 우물목반자의 목천판에 해당한다. 반자판 168립으로 구성된 우물목반자는 영내에 설치했고, 살반자 48척으로 구성된 우물지반자는 낙남헌과 이어진 노래당 온돌방에 설치했을 가능성이 크다.<sup>26)</sup>

26) 현재 낙남헌은 영내 부분 3칸에만 반자가 설치돼 있다. 반자는 우물목반자로서 격자수는 매 칸 72개, 총 216개이다. 그런데 『화성성역의궤』에서는 낙남헌(노래당 포함)에 반자판 168립과 살반자 48척을 설치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반자판과 살반자를 합하면 모두 216개가 되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물목반자의 격자수와 일치한다. 기록된 목반자판 수와 현 격자수의 차이는 개수를 잘못 기록했을 가능성과 초창 때에 우물목반자 168개, 살반자 48개로 나누어 설치했다가 이후에 216개 모두 우물목반자로 설치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공간의 성격이 동일한 영내 부분 3칸에 우물목반자와 우물지반자를 혼합하여 설치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영내 부분 반자는 의궤에서 ‘조정(藻井)’으로 표기한 우물목반자만 설치했고, 우물지반자[箭盤子]는 노래당 온돌방에 설치했다고 생각된다.

화성 행궁 건물의 반자 종류와 반자 구조별 위치는 개방성과 의례성이 강한 건물이나 공간, 폐쇄성과 사적 성격이 강한 온돌방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낙남헌 영내 부분의 우물목반자만 개설에서 '조정(藻井)'으로 특별히 구별하여 표기한 것으로부터 우물목반자의 격과 위상을 우물지반자에 비해 높게 여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물지반자를 궁궐 건물에 보편적으로 설치했지만, 우물목반자에 비해 성격과 위상을 구별하는 의식이 강화된 것이다. 1834년의 창덕궁과 창덕궁 중건 기록에서는 우물지반자와 우물목반자의 이와 같은 구별이 완전히 굳어졌음이 확인된다.

표 2. 1834년 창덕궁·창경궁 건물의 반자 기록

궁궐	건물	방반자(房斑子)		순각반자(純角斑子)	
		소란(개)	반자(척)	소란(개)	청판(첩)
창덕궁	대조전	640	177	584	149
	양심합	540	145	280	70
창경궁	통명전	400	100	640	160
	환경전	288	72	384	96

위 <표 2>는 『창덕궁영건도감의궤』와 『창경궁영건도감의궤』에서 창덕궁 대조전과 양심합, 창경궁 통명전과 환경전의 반자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우물지반자를 '방반자'로, 우물목반자를 '순각반자(純角斑子)'로 구별하여 표현하였다. 소란 개수와 반자 수의 비례,<sup>27)</sup> '척(隻)' 단위는 방반자가 17세기에 '지반자·지천반자'로, 18세기 후반에 '살반자[箭斑子]'로 표현한 우물지반자임을 알려준다. 소란 개수와 '청판' 개수의 비례, '입(立)' 단위는 순각반자가 우물목반자를 뜻함을 알려준다. 반자 구조에 의거한 '순각반자·지천반자' 구분 중 '순각반자'는 명칭이 유지된 반면, '지천반자'는 명칭이 소멸하고 설치된 공간과 결부하여 '방반자'로 표현하게 된 것이다. 궁궐 건축에서 우물지반자는 1834년에도 광범하게 설치되었지만, 설치 장소가 온돌방에 국한되며 우물목반자보다 위상이 낮은 시설로 여기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물지반자가 창덕궁과 창경궁의 일부 건물에 남아 있을 뿐 이러한 구조의 반자를 설치하는 전통은 끊긴 상태이다. 궁궐의 반자를 천장 전체를 평평하게

종이로 바르는 '종이반자[紙斑子]'와 격자 형태의 반자틀에 목판을 끼우는 '우물반자'로 구분하는 것이 현재의 보편적인 이해이다. 따라서 창경궁과 창덕궁의 불탄 건물을 재건한 1834년 이후 우물 지반자는 점차 설치하지 않게 되었으며, 마침내 이러한 구조의 반자에 대한 기억까지 소멸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현재 개념의 '종이반자' 설치와 보편화

현재의 '종이반자'는 19세기 전중반 궁궐 건축에서 위상이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건물 온돌방에 설치한 것이 확인된다. 『창덕궁영건도감의궤』에서 옥화당(玉華堂)은 방반자의 대란[多欄]과 소란, 순각반자의 대란과 소란을 기입한 뒤, '지반자우리목 10개[紙斑子耑里木十箇]'를 별도로 기입하였다. '내소주방 및 경극문행각 25칸 반'에는 방반자나 순각반자에 대한 기록 없이 '지반자우리목 9개'만 기입하였다. '요취문 좌우행각 5칸'에는 '지반자우리목 24개'를 기입하였다. 『창경궁영건도감의궤』에서도 '연춘헌 동행각 7칸 반'에 '지반자우리목 35개'를, '체원합 10칸 반'에 '지반자우리목 50개'를, '양화당 북행각 10칸'에 '지반자우리목 50개'를 기입하였다.

'지반자우리'는 『창덕궁영건도감의궤』와 『창경궁영건도감의궤』에서 확인되며, 이전이나 이후의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지반자우리'에는 척(隻) 단위의 '반자'나 입(立) 단위의 '청판' 기록이 전혀 없어 반자틀 하부 전체를 종이로 평평하게 도배하는 현재 개념의 종이반자 구조로 짐작된다. 이 시기 궁궐 건축에서 위상이 높은 건물 온돌방에 우물지반자를 설치하되, 위상이 낮은 건물 온돌방에는 현재 통용되는 개념의 종이반자를 설치했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후반 중건한 경복궁의 온돌방 반자는 기록이나 사진이 남아 있지 않아 구조를 알 수 없다. 국왕이나 왕비 침전의 온돌방에 현재 개념의 종이반자를 설치하게 된 것은 서양 도배지가 도입되면서 굳어진 듯하다. 『경복궁창덕궁중건도감의궤(1901)』에서는 경복궁 진전(眞殿)의 어재실(御齋室)에 '양반자지(洋斑子紙) 4필 반'을 써서 도배한 것이 확인된다. 『경운궁중건도감의궤(1904~1906)』에서는 석어당(昔御堂)의 '반자지 18필' 등 여러 건물에 필 단위의 반자지로 도배한 것이 확인된다. '필(疋)' 표기로 보아 이 종이는 서양에서 도입된, 두루마리[roll] 형태의 도배지일 가능성이 높다.

27) 창덕궁 대조전과 양심합 방반자의 소란 개수는 반자 척(隻)수의 4배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실제로 투입된 개수[實入]를 기록한 부분이다. 설치 과정에서 폐기한 수량까지 포함했을 가능성과 오기일 가능성이 있다.



그림 6. 경복궁 교태전(상)과 창덕궁 낙선재 온돌방(하)의 종이반자(『조선고적도보』10)

1917년 이전에 촬영한 경복궁 교태전의 온돌방도 필(丌) 형태의 무늬 있는 반자지로 천장을 평평하게 도배한 것이 확인된다. 창덕궁 연경당 온돌방도 현재 통용되는 종이반자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궁궐건축의 반자에 대한 현재의 보편적 이해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반화된 반자 구조에 근거하였다고 생각된다.

### 3. 종묘와 영녕전의 반자 구조

#### 3-1. 종묘와 영녕전의 건축 이력과 공간 구획

앞 장에서 우물지반자는 조선전기 이래 이어져 왔으며, 이른 시기일수록 우물목반자와 비교하여 성격을 한정하거나 위상을 낮게 여기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 장에서는 종묘와 영녕전의 반자 구조를 시기별로 살펴면서 이러한 사실을 다시 확인하겠다.

조선에서 역대 국왕의 신주를 안치하고 제사하는 종묘의 위상은 매우 높았다. 태조가 한양 천도를 결정한 뒤 궁실보다 종묘를 먼저 지은 것도 종묘의 높은 위상을 알려준다. 종묘는 1395년 완공한 이래 수차 증개축을 거쳤으며 임진왜란 때 전소되어 1608년(광해군 즉위)에 중건하였다. 창건부터 현재와 같은 구조로 증축되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sup>28)</sup>

종묘는 초창 때부터 중국 예제인 ‘전당후실(前堂後室)’ 제도를 따르되, 국왕마다 별도의 건물을 짓지 않고, ‘동당이실(同堂異室)’ 제도를 적용하여 한 건물에 모든 국왕의 신주를 안치하였다. 건물 내부 후면 고주열의 북쪽 칸을 국왕별로 구획하여 ‘실(室)’로 하고 전

면의 당은 칸을 막지 않고 띄워놓은 구조로 건축하였다. 전면 고주열에 벽과 문을 세워 전면 퇴칸을 외부로 개방하였다. 이후의 증축은 기존 건물에 동일한 구조의 칸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영녕전도 종묘와 동일한 구조로 지었다. 다만, 태조의 4대 선조를 제사하는 정전 4칸을 별도로 구획하고 좌·우에 협실 칸을 더하는 방식으로 증축한 점이 다르다. 1608년의 종묘와 영녕전 중건은 임진왜란 이전의 건물 형태와 공간 구획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sup>29)</sup>

표 3. 종묘와 영녕전의 건축 이력

연도	건물	건축 성격	규모	구성
1395 (태조 4)	종묘	초창	7칸	태실
1421 (세종 3)	영녕전	초창	6칸	정전 4칸, 협실 2칸
1546 (명종 즉위)	종묘	확장	11칸	
1608 (광해군 즉위)	종묘	중건	11칸	
	영녕전	중건	10칸	정전 4칸, 협실 6칸
1667 (현종 8)	영녕전	확장	12칸	정전 4칸, 협실 8칸
1725 (영조 즉위)	종묘	확장	15칸	
1836 (헌종 1)	종묘	확장	19칸	
	영녕전	확장	16칸	태실 4칸, 협실 12칸

종묘와 영녕전은 공간 구획으로 인하여 반자를 세 영역으로 나누어 설치하였다. 북쪽 ‘실(室)’ 부분은 칸마다 별도의 우물반자들을 설치하되, 당 부분 반자보다 낮게 설치하였다. 당 부분은 칸을 가르는 대들보를 기준으로 개별 반자들을 설치하였다. 벽과 문을 설치한 전면 고주열 남쪽의 개방된 퇴 부분에도 별도의 반자들을 설치하였다.

현재 종묘와 영녕전 반자 구조는, 영역별로 격자[井] 크기와 높이가 다를 뿐, 모두 우물목반자이다. 반자판은 모두 목판이며 한 격자에 복수의 반자판을 설치하였다. 격자의 크기에 적합한 목판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보인다. 1909년에 촬영한 사진에서도 현재와 같은 구조의 우물목반자가 확인된다.

조선 후기 종묘는 조선 전기의 종묘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중건하였음이 기록에서 확인될뿐더러, 중건이 완료된 1608년은 불탄 종묘의 내부 구조와 시설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종묘와 영녕전 각 구획의 반자도 불타기 전의 구조와 재질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 절

28) 본고의 종묘·영녕전의 건축 이력과 건축 이념, 공간 구획에 대한 소개는 『종묘 영녕전 정밀실측조사 설계용역보고서』(문화재청, 2013)에 의거한다. 도면이나 수치 등도 각주로 전거를 밝히지 않은 경우 이 보고서에 의거한 것이다.

29) 『선조실록』 권210, 선조 40년(1607) 4월 22일(갑인)





그림 14. 1909년 촬영 종묘 정전의 반자(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살피겠지만, 1909년 사진에서 확인되는 우물목반자 구조는 초창과 중건, 수차에 걸쳐 증축한 종묘와 영녕전의 반자 구조가 아니다. 19세기 후반까지 종묘와 영녕전에는 우물지반자가 설치되어 있었다.

### 3-2. 조선후기 종묘와 영녕전의 반자 구조

#### (1) 1667년 이전 종묘·영녕전 반자의 구조와 재질

1608년에 증축한 종묘의 반자 구조는 『승정원일기』의 1651년(효종 2) 기사에서 처음 확인된다. 국왕은 수백 개에 이르는 종묘의 ‘판자(板子)’ 도배를 단 하루 만에 마쳤고, “당초 관청에서 준비했던 종이는 1개 실(室)에 쓸 것이었는데 (이것으로) 두루 200여 판자를 도배했다.”고 나무랐다. 이에 신하는 “비록 정밀함을 다 할 수 없더라도 그중 더욱 심한 곳은 궁궐에서 내어 온 청능화지로 고쳐 바르면 심하게 정결하지 못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sup>30)</sup> 이로부터 종묘 우물지반자의 격자수가 200여개였으며, 지반자판을 ‘판자(板子)’로 표현할 수 있었음이 확인된다. 지반자판에 청능화지로 도배했음도 확인된다.

증축한 영녕전의 반자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1667년(현종 8)에 영녕전을 증축하고 작성한 『영녕전개수도감의궤』이다. 이 기록에서는 영녕전에 설치한 우물지반자의 구조와 재질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정전 4칸 및 좌·우 익실의 지반자는 모두 324척으로 청능화지로 도배하였다.<sup>31)</sup> 증축한 영녕전은 모두 12칸이었으므로, 1칸 당 27개의 지반자판을 설치한 것이 된다. 의궤 기록에서 산출된 27개의 반자판을 현재 영녕전의 반자들과 비교해 보면 당(堂)과 실(室)

의 반자틀 격자를 합한 것과 같다. 실 부분은 9개 격자로 구획하였고, 당 부분은 18개로 구획하였다. 전퇴의 칸 당 반자틀 격자수는 20개이다. 따라서 1667년에 청능화지로 도배한 지반자판 324개는 전고주열 안쪽 실내 공간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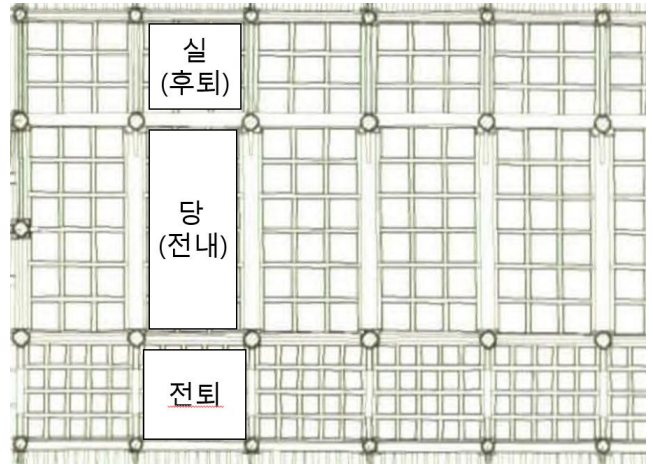


그림 15. 영녕전의 구획별 반자 구조

이처럼 영녕전 지반자판의 개수가 당과 실의 반자판을 합한 것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외부로 개방된 전퇴 부분의 반자는 우물목반자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현재 영녕전 전퇴 부분 반자틀 격자 규모가 당·실에 비해 작은 것에서도 확인된다. 당의 격자 규격은 83.9×91.6cm이고, 실은 83×103cm인데 비해, 퇴칸은 55.9×59.4cm에 불과하다. 이처럼 전퇴 부분 반자틀 격자의 규모가 작은 것은 이 반자틀에 목반자판을 설치했을 가능성을 알려준다. 그러나 의궤에서는 전퇴의 반자 구조나 반자판 재질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목재 중에 ‘광후판(廣厚板)’ 103립(立)이 확인되어, 넓고 두꺼운 목판으로 전퇴 부분 반자판을 제작했다고 짐작된다.

효종이 종묘 반자 도배를 성의 없게 했다고 나무란 1651년과 현종이 영녕전을 개축한 1667년은 종묘와 영녕전을 증축한 1608년으로부터 멀지 않고, 이 사이에 대규모 수리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증축한 종묘와 영녕전의 우물지반자는 조선전기 종묘와 영녕전의 우물지반자를 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물지반자의 성격이 고정되고 위상이 낮아져 간 시기에 권위가 극히 높은 종묘와 영녕전에 조선전기에는 설치하지 않았던 우물지반자를 새로 설치했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 (2) 1725년 종묘의 반자 구조와 재질

종묘와 영녕전에 우물지반자판을 설치하였고, 영역

30) 『승정원일기』 120책, 효종 2년(1651) 6월 18일(계해) “宗廟修理是何等事 如是不謹 累百板子 豈可一日畢乎 當初該司所備之紙 只一室所用 而遍塗二百餘板子 則其窘迫不精 不言可知(중략)吳挺一曰(중략)雖不能盡精 其中尤甚處 以內出青綾花紙改塗 則似無大段不精處矣”

31) 『영녕전개수도감의궤』 품목질, “正殿及左右翼室紙班子三百二十四隻內外塗精次 青綾花及紙地膠末等物乙良 從實入次”

에 따라 반자판의 구조와 재질이 달랐음은 1725년(영조 즉위)의 종묘 증축 기록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종묘의 우물지반자는 1699년(숙종 25)과 1704년(숙종 30)년에도 확인된다. 1699년 1월 5일 종묘에 제사를 지낼 때 바람이 세게 불어 제4실의 청능화반자 중 하나가 들떠 기울었다.<sup>32)</sup> 1704년 종묘[太廟]의 지반자[紙板子]를 모방하여 서울 성균관 대성전에도 우물지반자를 설치하였다.<sup>33)</sup> 대성전의 우물지반자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1725년에 기존 11칸에서 15칸으로 증축한 내역을 담은 『종묘개수도감의궤』에서는 “종묘의 반자는 모두 청능화로 도배하였다[宗廟斑子皆以靑菱花塗襍].”는 표현이 확인된다. 청능화 11칸 5장을 써서 도배한 정전 15칸은 매 칸에 21개[井]씩 도합 315개의 격자를 설치했음도 확인된다.<sup>3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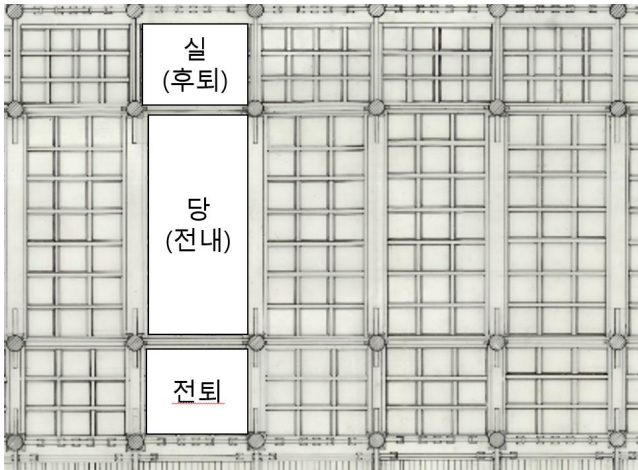


그림 16. 종묘의 구획별 반자 구조(문화재청)

이 격자수를 현재 종묘의 천장 격자와 비교해보면 당(堂) 부분과 일치한다. 종묘에서 실(室) 부분의 반자들 격자는 매 칸에 12개이고, 당은 21개이다. 따라서 청능화지로 도배한, 매 칸 21개의 격자로 구성된 지반자는 당 부분에 국한됨을 알 수 있다. 1667년에 영녕전의 실과 당에 모두 우물지반자를 설치한 것과 달리 1725년에 종묘에서는 당에만 우물지반자를 설치한 것이다. 또한 앞에서 확인했듯 1651년 11칸 규모였던 종묘에서 청능화지로 도배한 판자가 ‘200여 개’였다는 점

32) 『종묘의궤』 제4책, 봉심(奉審) “當寧 己卯 正月 初六日(중략)宗廟署牒報 則去夜行祭時 大風 第四室靑菱花斑子第四井顛傾云”

33) 『승정원일기』 421책 숙종 30년 10월 21일(무자) “曾前奉審時見之 太廟亦設紙板子矣 待明春釋菜 告由移安 設有紙板子(중략) 似或得宜 以此分付該曹 待明春舉行 何如上曰 依爲之”

34) 『종묘개수도감의궤 상』 품목질, “正殿十五間斑子 每間二十一井 式合三百十五井 所塗靑菱花與厚白紙”

에서 실 부분 반자는 1651년 이전부터 우물목반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종묘개수도감의궤』에서는 당 뿐 아니라 실과 전퇴 부분 반자들의 구조와 반자판의 재질까지 확인된다.

표 4. 1725년 종묘의 구획별 반자들 격자수와 반자판 재질

영역	1칸 당 격자수	반자용 목재	비고
전내후퇴(殿內後退)	12	광후판(廣厚板)	3칸 24립
전퇴	9	광후판	3칸 23립
전내	21	궁재(宮材)	“반자63척(盤子六十三隻)”

위 <표 4>는 『종묘개수도감의궤(1726)』에서 증축하기로 계획한 3칸의 반자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sup>35)</sup> 영역을 ‘전내후퇴’, ‘전퇴’, ‘전내’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설치한 반자들 구획과 반자 제작용 목재를 기록하였다. 각 영역의 반자들 구획은 현재 종묘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다. 개방되어 있는 남쪽 전퇴는 매 칸에 9정(井)이고, 전내후퇴(실)는 12정이며, 전퇴와 후퇴를 제외한 전내(당) 부분은 21정이다.

그런데 반자용 재료에 대한 표기가 다르다. 전내후퇴와 전퇴는 광후판(廣厚板)으로 기록한 반면, 전내는 궁재(宮材)로 기록하였다. 전퇴와 후퇴의 반자판을 넓고 두꺼운 목판으로 제작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 반자는 우물목반자임을 알 수 있다. 전내에는 궁재(宮材)로 ‘반자 63척(隻)’을 제작한 것에서 우물지반자를 설치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매 칸 21정(井) 규모로 설치한 전내 지반자판에 청능화지로 도배했음을 확인했거니와 ‘척(隻)’으로 표현한 63개의 반자판 수는 증축하기로 계획한 3칸의 우물지반자 격자 총수와 같다.

(3) 1836년(헌종 1) 이후 종묘와 영녕전의 반자 구조와 재질

종묘 전·후퇴의 우물판반자와 전내의 우물지반자는 종묘와 영녕전을 각기 4칸씩 증축한 1836년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영녕전의 실과 당 부분 우물지반자와 전퇴 부분 우물목반자도 유지되었다.

아래 <표 5>는 『종묘영녕전증수도감의궤』에서 종묘와 영녕전의 반자 도배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sup>36)</sup> 우물

35) 당초 3칸을 증축하려고 계획했으나 좌·우 2칸씩 4칸을 증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36) 『종묘영녕전증수도감의궤』 권1 품목, “宗廟殿內班子三百八十隻內 三百隻前排修補 初塗監試落幅紙十六軸四度 [戶曹] 八十隻新備 初塗監試落幅紙八軸[戶曹] 合再塗靑菱花二百六十六張 膠末六斗 永寧殿殿內班子四百三十二隻內 三百二十四隻前排修補 初塗監試落幅紙十八

지반자에 국한된다. 종묘 기존 건물의 반자수를 300척(隻)으로 기록하여 『종묘개수도감의궤(1726)』의 315정(井)과 차이를 보인다. 지금도 전내 각 칸에 21개씩의 반자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315’의 오기로 여겨진다. 300개로 오기한 기존 반자의 초배는 생원·진사시[감시]에서 낙방한 답지를 재활용하여 4회 도배하였다. 재배 즉 정배(正褫)로는 청능화지를 발랐다. 새 반자 80개도<sup>37)</sup> 같은 종이로 도배했는데 초배 횟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녕전을 보면 8번 발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5. 1835년 종묘와 영녕전의 반자 도배 내역

건물	구분	개수 (척隻)	도배	
			초배	재배
종묘	구반자	300	감시낙폭지 4도(度)	청능화지
	신반자	80	감시낙폭지	청능화지
영녕전	구반자	324	감시낙폭지 4도	청능화지
	신반자	108	감시낙폭지 8도	청능화지

영녕전은 기존 공간에 청능화지로 도배하는 324개의 반자가 있다고 기록하여, 1667년 기록과 일치한다. 증축한 공간에는 108개의 우물지반자를 새로 설치하였다. 기존 반자에는 감시낙폭지를 4겹 바른 데 비해 새로 설치한 반자에는 8겹을 발랐다. 기존 반자는 도배된 종이 위에 초배지와 정배지를 덧발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종묘영녕전증수도감의궤』에서는 종묘와 영녕전의 우물판반자에 대한 기록도 확인된다. 종묘와 영녕전의 증축한 부분에 ‘순각반자다란(純角班子多欄)’ 124개로 ‘井(정)’자형 반자들을 만들고 청판 144립(立)으로 구성된 우물목반자를 설치하였다.<sup>38)</sup>

軸三度[戶曹] 一百八隻新備 初塗監試落幅紙十軸八度[戶曹] 合再塗青菱花三百二十七張 膠籘八斗”

37) 1726년에 종묘 전내 반자들의 격자 수가 21개였고 현재도 21개이므로 ‘80개’는 ‘84개’의 오기이다. 기록자는 전내 반자들의 칸 당 격자수를 20개로 오인하고 기록했다고 여겨진다.

38) 현재 종묘 전내 반자들의 칸 당 격자가 9개이고, 후퇴가 12개이다. 영녕전 전내 반자들의 칸 당 격자는 20개이다. 이들 반자들에 17세기 중후반 이래 우물목반자가 설치되어 있었다. 1836년에 종묘와 영녕전을 각기 4칸씩 증축했으므로, 현재의 반자들에 기준하면 종묘에는 84립(전퇴 36, 후퇴 48)의 목반자판을, 영녕전에는 80립의 목반자판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므로, 모두 164개의 목반자판을 제작해야 한다. 그러므로 의궤에 144립으로 기록된 것은 ‘164립’의 오기일 가능성과 1836년 이후 반자들 격자수가 달라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종묘와 영녕전 건물의 건축적 보수성으로 미루어 필자는 오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종묘와 영녕전의 우물지반자는 1869년까지 유지되었다. 지금까지 모든 반자를 격자에 목반자판을 설치한 것은 1870년에 수리한 결과이다. 종묘와 영녕전을 봉심(奉審)한 보고에는 1836년 증축 이전부터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흙덩이가 떨어져 ‘청반자’에 바른 청능화지가 젖거나 뚫어졌다는<sup>39)</sup>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증축한 뒤에도 1868년까지 이러한 보고가 확인된다.<sup>40)</sup> 이후 1869년 11월 10일 종묘와 영녕전을 수리하기로 결정하고, 1870년 1월 25일 종묘와 영녕전의 신주를 옮겼다. 수리를 마치고 1870년 3월 39일에 신주를 환봉한<sup>41)</sup> 뒤의 봉심 기록에는 ‘청반자’나 ‘뚫어져 파괴됐다[穿破]’는 표현이 확인되지 않는다. 1870년 수리할 때에 지반자판을 지금까지처럼 목반자판으로 교체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영녕전의 우물반자 목반자판 위에는 1869년 이전에 설치했던 지반자판틀이 놓여 있다.<sup>42)</sup>

#### 4. 결론

이제까지 현존 건물과 기록을 살펴 우물천장 구조의 종이반자(우물지반자)가 설치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우물지반자는 현재 창덕궁의 성정각·서향각·관물헌·취운정, 창경궁의 숭문당에 남아 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사례는 조선전기 건축인 남별궁의 우물지반자이다. 우물지반자는 17세기 전중반 궁궐 건축에도 광범하게 설치되었다. 이 시기에 우물지반자는 구조에 의거하여 ‘지천반자’로 불리면서 현재의 우물반자인 ‘순각반자’와 대별되었다.

우물지반자는 19세기까지 궁궐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뒤 시기로 갈수록 반자의 성격이 고정되고, 우물목반자에 비해 위상이 낮아졌다. 19세기 전반 우물지반자는 온돌방에 국한하여 설치하는 반자로 굳어졌다. 이후 천장 전체 면적을 종이로 평평하게 도배하여 반자들 격자가 노출되지 않는, 현재 통용되는 개념의 종이반자가 보편화되었다. 현재 개념의 종이반자는 중요도나 위상이 낮은 건물에 설치했으나, 19세기 후반 서양 두루

39) 『종묘의궤속록 하』 수개(修改) “(순조 21년(1821) 7월 5일) 宗廟第十三室靑班子 自北第四井滲漏 所塗靑菱花穿破”

40) 『승정원일기』 2728책 고종 5년(1868) 6월 12일(무오) “進詣永寧殿奉審 則第三室神櫺上靑班子 自北第一井滲漏 沾濕於內塗 神榻上靑班子 自北第二井穿破 土塊墜落 第五室靑班子 自北第三井滲漏 第八室靑班子 自北第一井穿破 土塊墜落於寶櫺上 第十四室靑班子 自北第一井滲漏 沾濕於內塗 土塊墜落於冊欄上”

41) 『승정원일기』의 해당 날짜 기사

42) 『종묘 영녕전 정밀실측조사 설계용역보고서』(문화재청, 2013), 190쪽 [사진 5-46] 참조.

마리 벽지의 도입과 더불어 국왕과 왕비의 침실에까지 설치했다고 짐작된다.

이렇듯 조선후기에 우물지반자는 사적 성격이 강하고 보온이 중요한 온돌방 반자로 성격과 위상이 굳어지다가 마침내 건축 요소에서 소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조선전기 건축과 조선전기 건축을 재현한 17세기 전반의 건축에서 우물지반자는 특정 성격의 공간에 국한되지도, 우물목반자에 비해 위상이 구별되지도 않았다고 보인다.

우물지반자는 조선전기 건축인 남별궁에서 정사가 머무는 건물의 방과 대청에 설치되었다. 조선왕조에서 최고의 권위를 부여한 종묘와 영녕전도 1608년 중건 때에 조선전기의 반자구조를 재현하여 1869년까지 우물지반자를 유지하였다. 우물지반자는 종묘의 당(전내)과 영녕전의 당(전내)·실(후퇴)에 설치하였다. 반면에 우물목반자는 외부로 개방되어 비교적 권위와 위상이 낮은 전퇴 부분에 설치하였다.<sup>43)</sup> 이와 같은 배치는 조선전기에 우물지반자를 방에 특화된 시설로 여기거나 우물목반자에 비해 위상이 낮다고 여기는 인식이 없거나 약했음을 알려준다.

한국 건축에서 우물지반자를 언제부터 설치했는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인지 한국 건축의 독자적 성취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물목반자에 비해 보온 기능이 좋고, 천장의 무게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격자 크기를 임의롭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청·백·홍 능화지로 도배하여 우물목반자와 다른 시각적 미감을 표현할 수 있다.

현재 창경궁과 창덕궁의 5개 건물 및 성균관 대성전에 우물지반자가 남아 있다. 1834년에 재건한 통명전, 환경전 등 창경궁 건물의 온돌방에도 우물지반자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건물의 반자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함으로써 궁궐건축에서 조선시대 우물지반자의 구조와 의장(意匠)을 재현할 필요가 있다.

43) 영녕전 실(전내후퇴) 부분의 우물지반자 설치를 보면 종묘의 실 부분에도 초창 때에는 우물지반자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물이나 흙덩이가 지반자판을 뚫고 감실 위로 떨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종묘 실 부분의 지반자판을 목판으로 교체했다고 짐작된다. 감실 상부의 천정이나 지붕을 수리할 때에는 반드시 신주를 옮겨야 했으므로(『종묘의례속록 하』 수개(修改), “(순조 26년(1826) 6월 11일) 謹考瞻錄 則正間內龕室上修改時 有移還安節次 而朴工及道里上修改 則設雲梯舉行 無移還安節次矣”) 지반자판의 사소한 훼손으로 인한 잦은 이안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인다. 1651년 기록에서 종묘는 당(전내) 부분만 우물지반자였음이 확인되므로, 실(전내후퇴) 부분의 반자는 조선전기 또는 1608년 중건 때에 목반자판으로 바꿨다고 보인다.

## 참고문헌

1. 문화재청, 『창덕궁 성정각 권역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20
2. 문화재청, 『창경궁 숭문당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16
3. 문화재청, 『창덕궁 취운정 해체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14
4. 문화재청, 『종묘 영녕전 정밀실측조사 설계용역보고서』, 2013
5. 문화재청, 『도면\_사적\_창덕궁\_서향각 실측설계 및 보수설계(2-2) 현판, 주련, 반자 상세도』, 1995
6. 『빈례총람』
7. 『선조실록』
8. 『승정원일기』
9. 역사건축기술연구소, 『우리 궁궐을 아는 사전』, 2015
10. 『영녕전개수도감의궤』
11. 『영접도감군색등록』
12. 이종서, 「조선시대 남별궁(南別宮)의 평면 구조와 변화」, 『건축역사연구』 29-1, 2020
13. 이종서, 「1777년(정조 1) 이후 창덕궁 성정각의 편전(便殿) 구조」, 『건축역사연구』 29-6, 2020
14. 이종서, 「창덕궁 성정각의 건축 시기와 건축 구조」, 『건축역사연구』 28-2, 2019
15. 이종서, 「고려~조선전기 상류 주택의 방한 설비와 취사 도구」, 『역사민속학』 24, 2007
16. 『인정전영건도감의궤』
17. 『저승전의궤』
18. 『종묘개수도감의궤』
19. 『종묘영녕전증수도감의궤』
20. 『종묘의궤』
21. 『종묘의궤속록』
22. 『창경궁영건도감의궤』
23. 『창덕궁영건도감의궤』
24. 『화성성역의궤』

접수(2022.12.12)

수정(2023.02.15)

게재확정(2023.02.28)